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⑬

因筌求魚 得魚忘筌
인전구어 득어망전
因言得意 得意忘言
인언득의 득의망언
旣稱念佛之名
기칭염불지명
須行念佛之體
수행염불지체
若念無實體 口誦空名
약염무실체 구송공명
徒自虛功 有何成益
도자허공 유하성익
且如誦之與念 名義縣殊
차여송지여염 명의현수
在口曰誦 在心曰念
재구왈송 재심왈염
故知念從心起
고지염종심기
名爲覺行之門
명위각행지문
誦在口中
송재구중
卽是音聲之相
즉시음성지상

이음성구아
是人行邪道
시인행사도
不能見如來
불능견여래
以此觀之
이차관지
乃知事相 非眞正也
내지사상 비진정야
故知過去諸聖
고지과거제성
所修功德 皆非外說
소수공덕 개비외설
唯只論心 心是衆聖之源
유지논심 심시중성지원
心爲萬惡之主
심위만악지주
無上眞樂 自由心生
무상진락 자유심주
三界輪廻 亦從心起
삼계윤회 역종심기
心爲出世之門戶
심위출세지문호
心是解脫之關津

말로 인해 뜻을 얻지만 뜻 얻고나면 말은 잊어버리라

執相求福 終無是乎
집상구복 종무시호

통발로 인해 고기를 잡되 고기를 잡고나면 통발은 잊어버린다. 말로 인해 뜻을 얻지만 뜻을 얻고나면 말은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이미 염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염불의 실체를 행해야 한다. 만약 생각에 실체가 없이 입으로 헛되이 명호만을 왼다면 공력만 허비할뿐 이익이 없다. 또 외우는 것과 염(念)하는 것은 이름과 뜻이 매우 다르다. 입으로 하면 외운다 하고, 마음으로 하면 염한다 한다. 그러므로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깨치는 수행의 문이라 하고, 외우는 것은 입에 속하며 음성의 모습이니, 형상에 집착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故經云
고경운
凡所有相 皆是虛妄
범소유상 개시허망
又云若以色見我
우운약이색견아
以音聲求我

심시해탈지관진
知門戶者 豈慮難成
지문호자 기려난성
識關津者 何憂不達
식관진자 하우부달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邪道)를 행하는 것이니, 끝내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여러 성현들이 닦은 공덕은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였을 뿐이다. 마음은 여러 성인들의 근원이고, 마음은 모든 악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더없는 참 즐거움도 마음에서 생기고, 삼계를 윤회하게 됨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요, 마음은 해탈의 나루터이니, 문턱을 안다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나루터를 안다면 어찌 건너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구암스님

하남 광덕사 주지

경기도 하남 남한산 기슭의 작은 절 광덕사. 중부고속도로 진입로를 새로 내느라 절 밖은 세상처럼 소란스럽다. 공사장을 뒤로 하고 살짝 길을 틀어 산길로 접어드니 전나무가 쭉쭉 시원스레 하늘로 뻗어 있다. 천축사 무문관에서의 6년 수행 이후 제방 선원에서 선수행에 몰두해오신 구암스님께 큰 절 올리고 길을 여쭈었다.

구암스님은 "이미 선인들이 모든 가르침을 주셨는데, 단지 행하지 않을 뿐. 그러니 더 보탤 게 없다"고 말씀했다. 산을 울리는 일갈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뜨끔했다. 스님은 특히 어머니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불교설화를 소개하며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불자의 으뜸가는 생활덕목이라고 강조했다.

"불자의 으뜸덕목은 효도"

· 1918년 목포 生
· 효봉스님을 은사로 충무 미래사에서 출가
· 60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66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및 보살계 수지
· 해인사 15안거 성만을 비롯 동화사 통도사 등 제방 선원서 수행
· 72년부터 78년 천축사 무문관서 6년 두문불출 정진
· 현재 경기도 하남 광덕사에 주석

—스님께서는 20여년 전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서 두문불출하며 6년 동안을 오로지 참선에만 몰두하셨습니다. 선실 밖을 벗어나지 않는 수행은 말그대로 고행(苦行)이었을 것이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텐데요.

▲죽으려는 마음으로 무문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뛰쳐나오기는 어딜 가려고 나오겠어요. 72년에 들어가 78년에 나왔으니 20년도 훨씬 넘는 저편의 일처럼 아련하군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가 되겠다는 각오로 들어갔으니, 나가도 송장이 되어서 나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문관은 계룡산 갑사 위에 있는 대자암에 계시던 정영스님께서 연 선방이었습니다. 정영스님이 5년을 운영하다 봉은사로 가셨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수행 끝에 대각을 이뤘듯, 한번 들어가면 6년을 수행해 깨달음을 이루자는 뜻이었지요.

무문관이라고 해서 다른 수행처소와 유별나게 다르지 않았지만, 방 밖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달랐지요. 밖에서 방문을 걸어잠궈놨어요.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숨을 들이쉬나 내쉬는 동안에도 '이 뭐꼬'를 놓치지 말자는 일념이 깃든 곳입니다. 사방 일곱 자, 아홉 자 크기의 방 세 칸인 조그만 곳인데, 두 칸은 참선방으로 쓰고, 하나는 화장실이었지요.

무문관 6년 결사는 두 번 했지요. 12년 동안 무문관에 들어온 스님네들이 100명쯤 됐는데, 6년을 마치고 나온 스님은 셋 뿐이 안되요. 첫 번째에는 관응스님하고 제선스님이었어요. 관응스님은 지금 직지사 중암에 계시고, 제선스님은 어디 계신지 다들 모른답니다.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나하고 원공스님인데, 원공스님은 2년 늦게 들어와서 나갈 때는 나랑 같이 나왔어요. 원공스님은 지금도 무문관 꼭대기 방에 계신다는군요.

고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졸음이 오면 자고, 잠이 오지 않으면 가부좌로 앉아 있고, 걷고 싶으면 걸으면 되고, 끼니 때 되면 밥먹었는데, 밥은 이만한 구멍으로 쟁반에 담아 들어왔어요.

정영스님은 대자암에도 무문관처럼 일곱 자 짜리 참선방 열한 칸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여섯 달씩 한다는데, 명년에 들어갈 사람까지 줄을 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문관에 이어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선원에서 참선수행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재가불자들의 수행 열기도 뜨겁습니다.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러 많이 올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요.

▲여러 어른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내가 한마디 보태서 뭐하겠어요. 요즘의 선방과 스님들이 어떻네 하며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묵숨 걸고 수행하는 스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스님들을 위해 공양올리는 불자님도 적지 않고요. 수행하는 스님들을 두고 이렇쿵 저렇쿵 입에 올리는 일이 가당치 않습니다. 자기를 봐야지요.

불교는 나를 밝히자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불자라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 없이, 나를 돌아보고 추스르는 과정도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수행의 궁극은 나를 찾는 것인데, 그 자리는 결코 천상처럼 높은 자리도 아니고, 결국 나라고 부를만한 실체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자님이 내 앞에 앉아 나와 얘기를 나눕니다. 이때의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기자님과 얘기를 나누는 나라는 이치입니다.

나에게 와서 수행의 길을 물으니 가상합니다만, 어느 절을 가든 수행에 대해 가르쳐주는데 내가 뭐 특별히 줄 게 있겠습니까. 먼 길 마다 않고 산골짜기까지 오셨으니 차 한잔, 밥 한술 나누면서 수행하려고 마음을 냈으니 쉼없이 하라고 거들기는 하지요.

요즘은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하는 기도는 나도 잘되고,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잘 되자는 것이니까 얕게 볼일이 아닙니다. 나는 조석예불 후와 낮에 한시간 남짓 관세음보살 염불을 합니다. 선이 됐건 염불이건, 부처님 가피를 구하든 순간 순간의 맑은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성철스님의 네 가지 가르침, 밥을 적게 먹어라, 책을 보지 말아라, 돌아다니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는 말씀을 평생 수행의 지침으로 삼으셨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은 수행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책에는 분명 힘들여 이룬 체험이 들어 있고,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문화의 보고(寶庫)라고 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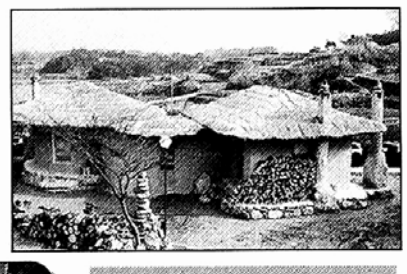
그러나 책은 남의 것입니다. 나를 대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가르침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가르침대로 되어 가나요. 내가 없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지요. 남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절에 나와 법문을 듣고, 교회에 나가 설교도 듣습니다. 돌아서면 그만이예요.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몸뚱이와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책을 읽다보면 책에서 써놓은 것이 내 생각과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나를 놓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산꼭대기를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산에 오른 것이 아니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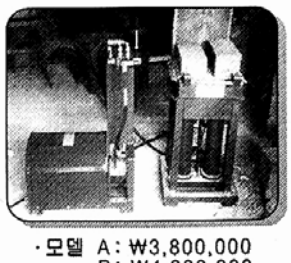
—우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란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ㅣ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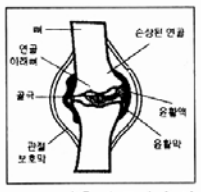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닳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아봐타 코스

<뜻대로 사는 길>

苦 人 欲 了 知
三 世 一 切 佛
應 觀 法 界 性
一 切 唯 心 造 - 화엄경 4구게 -

아봐타는 자신의 마음(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 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 오는 코스(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세계 64개국에서 안내되고 있으며 현대불교, 선(禪)의 공학, 새로운 인간 존재의 탐사기법 등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를 경험하신 많은 스님과 불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봉인사에서 아봐타 코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스는 국내외에서 많은 코스 안내 경험이 있는 慧元, 해산, 적경 스님 등 많은 아봐타 마스터들이 동참하여 코스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되는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수행자들을 초대합니다.

▶주 최 : 봉인사
▶홈페이지 : http://soback.kornet21.net/~bonginsa
▶기 간 : 2000년 9월 16일 ~ 24일 (8박 9일)
▶참 가 비 : 180만원(숙식제공)
▶신 청 : 봉인사 한길정진원
T.(031)574-5585/529-5585 F.031)574-0808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